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 및 사회적 요구도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요인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권수진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Convergence Factors of Affecting Perception and Social Requirements of Dental Hygienists

- Focused on Busan and Gyeongnam -

Su-Jin, Kwon

Professor, Dept of Dental Hygiene, Bus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 및 치과위생사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융복합적 요인을 검증하여 향후 치과위생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직업 및 역할 정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긍정적 인식 확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부산·경남 지역 27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2017년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설문조사하여 235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력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긍정적일수록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는 증가하였고, 학력이 낮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긍정적일수록, 삶의 질이 긍정적일수록,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지식에 대한 인식도가 증가할수록 요구도가 증가하였다. 향후 치과임상 현장, 치위생 교육현장, 유관단체 등 각 영역에서 직업적 역할 정립과 인식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치과위생사, 인식도, 사회적 요구도, 융복합적 영향요인, 삶의 질,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n dental hygienists and convergence factors to affect social requirements on their roles so as to utilize them as the fundamental data to assist the common people to understand the occupation and roles of dental hygienists and expand their positive perception further. Upo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rom 235 final analysis subjects who underwent survey from August 1st to 25th 2017 among 270 adults in Busan and Gyeongnam areas, the awareness level on the dental hygienists was higher as the education level was lower and quality of life was more positive. Requirements were increased more as the education level was lower, quality of life related to oral health was more positive, quality of life was more positive, and awareness level on the roles and knowledge of dental hygienists was increased more. Further programs and promotional plans should be continuously activated to establish the career roles and expand the awareness in every field including dental clinic practices, dental hygiene training, related groups, and so on.

Key Words : Dental Hygienest, Perception, social requirements, Convergence Factors, Quality of Life, Quality of Life related to Oral Health

1. 서론

평균수명이 연장되며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고 건강의 필수요소인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으며, 최근 스켈링, 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건강보험 급여화 항목이 확대 시행되며 양질의 치과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였다. 지역사회 치과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와 더불어 구강병 예방 및 교육 전문가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 및 비중이 중요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국민 개개인의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최적의 전신건강상태를 유지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며[1], 법률로도 명시되어 있다[2]. 한국의 치위생 교육은 1965년도에 시작된 이후 학문적인 기틀 및 발전을 이루었고, 2017년 치과위생사 면허취득자 수는 약 7만 여 명에 이르며[3]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치과 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여전히 모호하며 부족한 상황이다[4].

Chung 등[5]은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영향 요소로서 치과위생사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사회적 인식을 언급하였고, Kang[6]은 치과위생사가 전문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요구할 때라고 하였다. 또한 You[7]의 연구에서 바람직한 치과위생사의 인식 및 역할, 즉 정체성 확립은 업무수행에 보다 적극적이며, 책임감 있는 치과위생사를 육성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환자들은 치과위생사에 대한 올바르게 바람직한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결국 치과위생사에 대한 올바르게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통해 치과위생사들의 직업적 정체성이 확립되고 이것이 직업적 만족과 더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선행연구들이 대상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대학생 또는 치위생(학)과 학생과 일반 대학생 비교한 연구[4,8-10],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11,12], 내원환자 및 일반인과의 비교 연구[13,14]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5,15] 있었으나 최근의 연구는 드문 실정이며 대부분이 대상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인식 및 이미지에 관한 단편적인 조사나 비교 연구에 그쳤다.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일반

인이 아닌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Park and Won[11]의 연구가 있고, 유사연구로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가 사회적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Choi and Lee의 연구[14]가 있었는데 치과내원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치과이용 특성에 따른 인식도와 요구도 차이가 결과로 제시되었지만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건강관련 삶의 질 특성을 복합적 요인으로 보고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에 대한 기초인지도 실태특성 조사를 위해 문헌고찰을 통한[4,5,9,13,15] 공통된 주요 항목을 선정하고, 일반적 특성에 Choi & Lee의 연구[14]를 참고하여 치과이용 특성에 관한 변수를 포함하였으며, 이미지, 역할, 지식을 포함하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정도를 파악하고 인식도와 사회적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 구강관련 삶의 질을 포함한 융복합적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치과위생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직업 및 역할 정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긍정적인 인식 형성과 치과위생사를 알리기 위한 홍보기획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 경남 지역 270명의 성인을 비확률 표본 추출방법 중 편의표본추출 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하였으며, 도출된 표본의 수보다 탈락률을 10% 고려하여 표본 수를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활용계획에 대한 설문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후 서명한 사람에게 한하여 실시하였고, 2017년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강보건교육을 미리 받은 조사요원이 대상자에게 용어와 질문을 쉽게 설명한 후 작성하게 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 하였다. 총 270부 중 243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90%이었으며, 이중 불성실 응답자 8부를 제외하고 235명을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 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3년 이

내 치과 방문 횟수, 구강건강 관심도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 여부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호칭 인식 여부, 치과위생사 호칭, 직업 들어본 경로, 구별 방법, 호칭 종류를 각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Bae[16]의 연구를 통해 개발되어 구강영역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단축형 한국어 구강건강영향조사(OHIP-14)의 14개 문항을 대상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통해(Cronbach's $\alpha=0.909$)변수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구강건강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발생 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경험한 적이 없다'는 1점, '아주 가끔 경험하였다'는 2점, '가끔 경험하였다'는 3점, '자주 경험하였다'는 4점, '아주 자주 경험하였다'는 5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로는 Min 등[17]의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어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단축형(WHOQOL-BREF) 26문항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 신뢰도 분석 후 (Cronbach's $\alpha=0.866$)사용하였다. WHOQOL-BREF는 최근 2주간 주관적으로 느낀 삶의 질을 자가 평가하는 척도로 신체적 건강 영역·심리적 영역·사회적 관계 영역·환경 영역과 전반적인 삶의 질(overallQOL)에 대한 두 문항을 포함하여 전체 2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질문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어 '전혀 아니다'를 1점, '약간 그렇다'는 2점, '그렇다'는 3점, '많이 그렇다'는 4점, '매우 많이 그렇다'는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는 기존 문헌의 설문지[9,14,18]를 고찰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 후 신뢰도 분석(Cronbach's $\alpha=0.801$)을 통한 검정 후 적용하였으며, 이미지, 역할, 지식으로 세분화하여 각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사회적 요구도는 이미지, 역할, 지식이 포괄적으로 적용된 개념으로 Choi and Lee의 연구[14]에서 제시되었던 문항의 구성을 일부 수정하여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0.864$ 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으며 인식도 및 사회적 요구도는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도 및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와 사회적 요구도에 대한 문항

측정을 본 조사 이전 성인 30명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전문·학술용어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보완한 후 최종 사용하였다.

2.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IBM SPSS Statistics, Armonk, NY, USA)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및 자료의 기술적 특성을 제시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 및 사회적 요구도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은 남자 48.9%, 여자 51.1%로 여자가 많았고, 30대에서는 남성이 50대 이상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층은 30대가 34.0%로 가장 많았으며, 20대(20%), 40대(22.6%), 50대 이상(23.4%)은 대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학력은 대학교 이상 졸업이 47.2%, 다음으로는 전문대졸 21.7%, 고졸이하 20.4%, 대학재학 40.6%의 순이었다. 3년 이내의 치과 방문 횟수는 4회 이상이 34.0%로 가장 많았고, 1회 이하가 27.7%, 3회가 21.7%, 2회가 16.6%순이었다. 구강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관심도는 '보통이다'가 48.9%로 가장 많았고 '관심없는 편'이 44.3%, '많은 편'이 6.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1>.

3.2 연구변수의 기술적 통계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 및 요구도의 관련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OHIP-14)요인은 평균 34.15점, 삶의 질 요인(WHOQOL-BREF)은 평균 84.82점,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 이미지 부문 평균 15.98점, 역할 부문 평균 16.06점, 지식 부문 평균 16.70점, 지식 부문 평균 16.70점, 치과위생사에 대한 요구도 평균 60.64점 이었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

Variables	Categories	n	%
Sex	Male	115	48.9
	Female	120	51.1
Age	20-29	47	20.0
	30-39	80	34.0
	40-49	53	22.6
	50≤	55	23.4
	≤High school graduation	48	20.4
Education	Attending university(college)	25	10.6
	College graduation	51	21.7
	≥University graduation	111	47.2
Number of dental clinic visit (within 3year)	Under 1 time	65	27.7
	2 times	39	16.6
	3 times	51	21.7
	More than 4 times	80	34.0
Interest in oral-health	Low	104	44.3
	Average	115	48.9
	High	16	6.8
Total		235	100.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d Variables

Variables	Min	Max	M	SD
OHIP-14	14.00	62.00	34.15	10.45
WHOQOL-BREF	40.00	122.00	84.82	12.31
Perception on dental hygienists _Image	9.00	25.00	15.98	2.34
Perception on dental hygienists_Role	7.00	25.00	16.06	2.53
Perception on dental hygienists_Knowledge	8.00	24.00	16.70	2.61
Needs on dental hygienists	30.00	75.00	60.64	8.67

3.3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지 실태

치과위생사에 대한 호칭 인지여부는 '예'라고 응답한 경우가 19.1%였으며, 치과위생사에 대한 호칭 및 직업을 들어본 경로는 주변 사람들로 부터가 45.5%로 가장 많았고 치과에서 스스로 인지(23.8%), 방송매체를 통해(13.6%), 기타(11.5%), 치과에서 본인 소개를 통해서(5.5%) 순이었다. 치과위생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하는 업무를 보고가 48.1%로 가장 많았으며, 복장(가운,명찰)을 보고 28.1%, 타인이 부르는 호칭을 듣고 11.1%, 대화중에 7.2%, 치과위생사가 직접 소개해서 5.5%의 순이었다.

치과위생사를 부른 호칭은 선생님 42.1%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 25.5%, 기타(00씨, 저기요 등) 27.2%, 치과위생사 3.4%, 언니 또는 아가씨 1.7%의 순이었다<Table 3>.

3.4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 및 사회적 요구도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요인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 및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융복합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는 0.203으로 나타나 약 20%를 설명하고 있으며,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는 0.175이고, F값이 13.718($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력($\beta=-.139$)이 낮을수록, 삶의 질($\beta=.272$)은 긍정적일수록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는 증가하였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는 0.499로 나타나 약 50%를 설명하고 있으며,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는 0.463이고, F값이 15.560($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력($\beta=-.079$)이 낮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Table 3. Perception and status on dental hygienists

Variables	Categories	n	%
Recognition of the dental hygienist's title	No	190	80.9
	Yes	45	19.1
How have you heard about the occupation and title of dental hygienists?	Through a dental hygienist in a dental clinic	13	5.5
	Recognition in a dental clinic	56	23.8
	Through media	32	13.6
	From other people	107	45.5
	Other	27	11.5
How do you distinguish dental hygienists?	By looking at their uniform (gown or name tag)	66	28.1
	By looking at their work	113	48.1
	By title	26	11.1
	Dental hygienist introducing him/herself to the respondent	13	5.5
	From conversation	17	7.2
Title for dental hygienists	Sir/ Madam	99	42.1
	Nurse	60	25.5
	Dental hygienist	8	3.4
	Miss (name)	4	1.7
	Other (Name, excuse me, etc.)	64	27.2
Total		235	100.0

Table 4. The convergence effect of perception and social requirements on dental hygienists of respondent

Variable	perception			social requirements		
	Standard Estimate	t	p	Standard Estimate	t	p
	β			β		
(constant)		8.176	.000		6.266	.000
Sex	.089	1.337	.183	.072	1.135	.257
Age	.045	.613	.540	-.209	-2.929	.252
Education	-.139	-1.966	.049	-.079	-1.148	.040
Number of dental clinic visit (within 3year)	.045	.688	.492	-.064	-1.013	.312
Interest in oral-health	-.054	-.799	.425	-.111	-1.712	.088
OHIP-14	-.072	-1.047	.296	-.140	-2.121	.035
WHOQOL-BREF	.272	3.992	.001	.177	2.630	.009
Perception on dental hygienists_Image				.129	1.597	.112
Perception on dental hygienists_Role				.219	2.408	.017
Perception on dental hygienists_Knowledge				.281	3.302	.001
			F=13.718, p<.001 R ² =.203 Adj R ² =.175	F=15.560, p<.001 R ² =.499 Adj R ² =.463		

질($\beta=-.140$)이 긍정적일수록, 삶의 질($\beta=.177$)이 긍정적일수록 치과위생사에 대한 요구도는 증가하였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역할($\beta=.219$)과 지식($\beta=.281$)에 대한 인식도가 증가할수록 요구도도 증가하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 및 치과위생사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정도를 파악하고, 인식도와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과학적 항목과 삶의 질, 구강관련한 삶의 질을 포함한 융복합적 요인을 검증하여 향후 치과위생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직업 및 역할 정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긍정적 인식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남자 48.9%, 여자 51.1%로 비슷하게 분포하였고, 연령층은 30대가 34.0%로 가장 많았으며, 전 연령대별 대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학력은 대학교 이상 졸업이 47.2%로 가장 많았다. 3년 이내의 치과 방문 횟수는 4회 이상이 34.0%로 가장 많았고, 구강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관심도는 보통이 48.9%로 가장 많았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 및 요구도의 관련 요인을 평균으로 점수화하고 그 수준을 살펴보면 삶의 질(WHOQOL-BREF) 요인의 평균점수가 84.82로 가장 높아 긍정적 인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OHIP-14)은 34.15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므로 긍정적 인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구도에 대한 점수도 60.64점으로 비교적 높아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는 높은 수준이었고, 인식도는 이미지 부문 평균 15.98점, 역할 부문 평균 16.06점, 지식 부문 평균 16.70점으로 각 영역에서 점수가 낮아 치과위생사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식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지 및 실태조사에서 치과위생사란 호칭의 인지도는 예 19.1%였으며, 아니오가 80.9%로 나타나 최근 치과위생사협회의 TV, 라디오 등 미디어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과거에 비해 일반인들의 치과위생사란 직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상승되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호칭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처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Chung 등[5]과 Choi 등[15]의 연구에서 치과위생사 인지도가 각각 46.6%, 62%였던 연구결과와도 상이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적 요인이 일부 작용되었을 것이라 예상되며, 질문에 있어서도 치과위생사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타 연구와 달리 호칭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부분도 결과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호칭 및 직업을 들은 경로는 주변 사람들로 부터가 45.5%로 가장 많았고 치과에서 스스로 인지 23.8%로 나타나 아직도 주변사람들을 통해 막연히 알거나 치과방문을 통해 스스로 인지하는 부분이 과반수를 넘어 향후 일시적 홍보에 그치지 않고 직업 알리기의 보다 광범위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다. 치과위생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하는 업무를 보고가 48.1%로 가장 많았으며, 복장(가운, 명찰)을 보고 28.1%로 나타났는데 이는 Oh and Park[4], Shin[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일반인들이 업무를 보고 치과위생사를 구별하는 비율이 높다면 향후 보다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있는 업무인 예방 및 교육관리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치과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Choi and Lee[14]의 연구에서는 복장(가운, 명찰)

을 보고가 42.5%로 가장 높았고, Choi 등[15]의 연구에서도 치과위생사를 대표하는 상징이 '명찰'이라고 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2017년부터 명찰패용이 의무화된 만큼 보다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보여진다. 또한 비율을 낮지만 치과위생사가 '본인을 직접 소개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 홍보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하는데 2013년 이후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급여화로 각 치과의료기관의 스케일링 술식을 받기 위한 내원환자가 크게 증가한 만큼 스케일링 등의 업무 시행 전 담당치과위생사가 먼저 본인을 소개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Jang 등[19]의 연구에서 제시하였듯이 최근 디지털 구강스캐너의 임상적용과 관련한 업무능력 향상 등도 치과위생사를 인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치과위생사를 부른 호칭은 선생님 42.1%로 가장 많았고, 기타(00씨, 저기요 등) 27.2%, 간호사 25.5%의 순으로 Shin[13]의 연구와 유사하였는데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Choi and Lee[14]의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27.6%로 가장 많았다. 대상의 차이는 있으나 이름을 부르거나, 간호사라 부르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은 일반인들의 치과위생사란 직업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결과로 보여진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 및 사회적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융복합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식도에서는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p < .001$). 즉 학력($\beta = -.139$)이 낮을수록, 삶의 질($\beta = .272$)은 긍정적일수록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는 증가하였다. 사회적 요구도에서는 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삶의 질, 치과위생사의 역할, 지식요인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p < .001$). 즉 학력($\beta = -.079$)이 낮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beta = -.140$)이 긍정적일수록, 삶의 질($\beta = .177$)이 긍정적일수록 치과위생사에 대한 요구도는 증가하였고,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 중 이미지를 제외한 역할($\beta = .219$)과 지식($\beta = .281$)에 대한 인식도가 증가할수록 사회적 요구도도 증가하였다. Choi and Lee[14]의 연구에서도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가 사회적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로 역할, 지식에 대한 인식도가 증가할수록 요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와 유사하며 과거에 비해 치과이용이 확대되고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그에 따른 직업적 역할과 사회적 요구도 또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긍정적일수록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는 증가하였는데 타 연구에서 삶의 질 요소를 포함한 융복합적 영향요인(회귀모형)에 대한 검증은 없어 같은 맥락에서의 비교 분석은 어렵겠으나 분산분석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Choi and Lee[14] 연구에서 학력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지식에 대한 인식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대학교 졸업자가 치과위생사 지식에 대한 인식도가 가장 높았고, Jung 등[5]과 Park and Won[11]의 연구에서도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 건강관련 삶의 질이 긍정적일수록 치과위생사에 대한 요구도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치과위생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높으나 그에 따른 직업적 역할의 기대치가 크고 치과진료 전문성에 관한 의존도 또한 반영된 결과임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회귀모형에서는 치과이용 특성이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나 Choi and Lee[14] 연구에서 치과이용 특성 중 방문횟수와 구강건강관심도에 따른 인식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 및 사회적 요구도에 복합적 영향요인을 검증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유의미한 영향요인 검증이 다방면으로 비교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산·경남의 일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로 전체를 일반화하기에는 그 한계성을 가진다. 그러나 인식도와 사회적 요구도 수준을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융복합적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화 되었으며,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설문을 설계하며 법률에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주요 업무 등을 함께 제시하는 등 연구대상자들에게 치과위생사에 대해 간접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이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치과위생사란 직업에 대한 역할정립과 발전은 물론 일반인들의 긍정적 인식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부산·경남 지역 일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 및 사회적 요구도 정도

를 파악하고 영향을 미치는 융복합적 요인을 검증하여 치과위생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바람직한 치과위생사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 및 사회적 요구도, 융복합적 요인의 수준을 살펴보면 삶의 질 요인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아 긍정적 인지수준이 높은 것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또한 긍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구도는 높은 수준이었고, 인식도는 이미지, 역할, 지식의 각 영역에서 점수가 낮아 치과위생사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식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 및 사회적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인식도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긍정적일수록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는 증가하였다. 사회적 요구도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긍정적일수록, 삶의 질이 긍정적일수록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는 증가하였고,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지식에 대한 인식도가 증가할수록 사회적 요구도도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연구결과를 통해 치과위생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직업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확대를 위해 치과의료기관 내 치과위생사는 구강병 예방, 구강보건교육, 관리 등 진료협조 외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환자들에게 업무로서 지속적으로 인지도를 높여야 하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치과위생사 업무보장에 관한 정책적 과제 및 대국민 직업인식 확대를 위한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치과위생사들이 직업에 대한 체계적 역할 정립과 긍정적 인식,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의 긍정적 인식을 함양하기 위한 봉사활동 등 다양한 구강보건 프로그램을 등을 개발,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B. W. Kang et al. (2013). Introduction to Dental Hygienics, Seoul : Jee Seun Publishing.
- [2] B. W. Kang. (2016). Medical Laws for Dental Hygienist. Seoul : Komoonsa Medical Science.
- [3]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2017). Retrieved

- 35th General Assembly, National Dental Hygienist data.
- [4] H. N. Oh, Y. N. Park. (2012). Awareness of Dental Hygienists in Dental Hygiene and Non-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2(1), 23-29.
- [5] W. G. Chung, A. R. Son, H. R. Jung, J. Y. Kim, J. E. Ha, S. H. Heo, N. H. Kim. (2006). Cognition and Perception of Community Members about Dental Hygienists Job.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6(4), 403-417.
- [6] B. W. Kang. (2006). A Study on the Determinant Factors the Image of Dental Hygienists.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6(1), 1-12.
- [7] M. S. You. (2003).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Preference of Dental Hygienist. 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Chon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Jeon-ju.
- [8] B. Y. Lee, J. Y. Lee, B. M. Im, H. J. Gu. (2011). A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n Dental Hygienists.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13(4), 277-286.
- [9] S. Y. La. (2005). A Study on the Cognition for Dental Hygienist of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Korea.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Yong-in.
- [10] M. R. Lee, M. G. Ji. (2015). Study on Awareness and Images of Dental Hygienists in Some College Students.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9(2), 211-218.
Doi : 10.21184/Jkeia.2015.06.9.2.211
- [11] S. Y. Park, Y. S. Won. (2012). Recognition of Health Care Workers for Dental Hygienis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6(3), 127-140.
- [12] G. E. Park, Y. M. Lee, J. G. Lee, H. S. Jeon. (2015). A Survey on Dental College Students Perception and Understanding of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5(3), 531-538.
Doi : 10.13065/Jksdh.2015.15.13.531
- [13] K. S. Shin. (2009).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Image of Dental Hygienist. Graduate School of Legal Studies and Public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Yong-in.
- [14] J. M. Choi, E. J. Lee. (2012). The Effect of Dental Patient's Perception about Dental Hygienist on the Social Demand of Dental Hygienist.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2(4), 392-403.
- [15] E. M. Choi, Y. S. Song, S. H. Lee. (2004). A Study on Dental Hygienist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Inhabitants in Seoul an Kyunggi-do. *Kyung Bok College Journal*, No. 8, 399-414.
- [16] K. H. Bae. (2005).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nd Development of Oral Health Programs in Korean Elder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Dentistr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 thesis, Seoul.
- [17] S. K. Min, C. I. Lee, K. I. Kim, S. Y. Suh, D. K. Kim. (2000).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 (WHOQOL-BREF). *J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 39(3), 571-579.
- [18] S. I. Kim, M. K. Jun, S. M. Lee. (2016). Needs of revision of dental hygienist-related medical law.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6(5), 677-685.
Doi : 10.13065/Jksdh.2016.16.05.677
- [19] K. A. Jang,, S. E. Heo, H. K. Kang, S. J. Lee. (2018). A Convergence Study on the Changes of Awareness and Preference according to the Clinical Application Experience of Digital Intraoral Scanners in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7), 135-140.
Doi : 10.15207/JKCS.2018.9.7.135

권 수 진(Kwon, Su Jin)

[정회원]



· 2007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보
건과학과 의료경영전공(보건학 석
사)

· 2014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의료경영전공(보건학
박사)

· 2007년 9월 ~ 현재 : 부산과학 기술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치위생학, 공중구강보건, 치과의료경영

· E-Mail : bettysj@hanmail.net